

문화전당 장기비전 제시

자체 창작 콘텐츠로 2017년부터 돈 번다

10억 수익...2020년 80억·재정자립도 30%대 목표

지난 25일 공식공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017년부터 자체 생산한 문화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변모한다. 또 공식개관 때 문을 열지 못한 민주평화교류원의 콘텐츠 구축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돼 이르면 상반기에 개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6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임향순) 회의에서 이같은 문화전당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문화전당 예산전망·수입 목표안'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2017년부터 입장료, 편의시설 임대비용을 제외하고 자체 창작물로부터 수익을 올린다. 창작·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국내외 시장에 유통해 2017년 10억원의 수익을 올린 데 이어 2018년 30억원, 2019년 50억원, 2020년 80억원의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다. 창작·제작 콘텐츠는 문

화전당 예술극장, 창조원, 어린이문화원 등에서 만들어진 문화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전당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드러내는 재정자립도도 내년 10.1%에서 2020년까지 30.3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성이 강한 문화전당이 사실상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 체질이 바뀌는 셈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에는 250억원에서 300억원 가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문화전당 5개원(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창조원, 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신과 공연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 11월15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6개 건물)의 경우 옛 전남도청 본관(12월), 경찰청 본관·민원실(2016년 2월), 상무관·도청회의실(2016년 5월)은 단계적 콘텐츠 구축사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전면 공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정파·갈등 내려놓고...YS 정신 되새긴 5일

김영삼 전 대통령 영면 정·재계 인사·외교사절 등 각계·각층 빈소 찾아 조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닷새간 끝없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장택상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딘 고인의 인생 역정이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한국 현대 정치사와 궤를 같이했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세대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이 빈소를 직접 찾아 영면을 기원했다. 특히 정·관계는 물론 재계 인사들과 주요 외교사절, 개인적 인연이 없는 일반 시민까지도 영정 앞에 헌화하며 서거를 슬퍼했다.

14대 총선에서 고인이 직접 발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거 당일 직접 찾아 조문했고, '35년 약연'을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결식 전날인 25일 오후 빈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한 평생 애증 관계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빈소를 직접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도 헌철씨와 손을 맞잡았다.

고인과 함께 이른바 '3김(김) 시대'를 풍미했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서거 당일 휠체어를 탄 채 직접 빈소를 찾아 유족들과 함께 고인과의 옛 경험을 나누며 명복을 빌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서 부인 손명순 여사와 아들 김현철씨 등 유가족들이 헌화 및 분향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인의 가신 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은 첫날부터 상주 역할을 맡아 유족 대표인 차남 현철씨와 함께 조문객들을 맞았다.

최측근이었던 최형우 전 내무장관은 몸이 불편한데도 한달음에 달려와 오열했고, 핵심 멤버였던 김수환·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정원 최고위원 등도 내내 자리를 지켰다.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축을 형성했던 동교동계의 좌장인 인사들은 첫날부터 상주 역할을 맡아 유족 대표인 차남 현철씨와 함께 조문객들을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독일 출장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하자마자 공황에서 빈소로 직행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빈소에서는 잠시 여야를 잊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추기경 추한중국대사 등 외교사절도 애도를 표시했다.

일명 '용팔이 사관'으로 알려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주범 김용남 씨, 상도동 사저 요리사였던 이한규 씨 등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끊이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지역민·정치권 1차 관문 통과시켰더니 전남도 준비 부족... 5억달러 유치 못해

여수 복합리조트 무산되나

여수 경도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외국자본 투자 조건을 제출 시한 하루 전까지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 후보지 중 1곳인 부산 북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롯데 측의 사업 포기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1차 후보지에 포함됐던 9곳 중 2~3곳은 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수 경도의 경우 최근까지 보고회를 갖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경도를 포함하는 방안 등 투자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7일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에서 투자규모 1조원 이상(외국인 투자 5억 달러),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된 정규법인의 경우 3인 출자지분을 50% 이상 등의 정규자격 기준을 사업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자본 유치를 자신했던 여수 경도에 '노란불'이 들어온 것은 애초 자본 참여를

약속했던 중국 자본이 중국 정부의 '카지노 투자 금지 방침'으로 일시에 철수하면 사부터다.

당초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개발구상을 제출한 컨소시엄은 국내 신한투자금융·국제신사·일성건설로 구성된 여수경도관광개발(주), 한국투자증권·동양건설·의료법인 무진의료재단의 (주)한국에너지산업, 해외 통화평강도가촌·삼일중공업·용원건설집단·신디그룹 등이 참가한 (주)평가도가촌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여수경도관광개발(주)은 이미 포기 의사를 밝혔고, 중국 자본이 참여하는 (주)평가도가촌 역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 경도사업소는 동남아와 일본 자본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지 9곳 중 인준 2곳, 경남 진해 등이 이 같은 조건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도사업소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국내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편히 쉬소서" 3만7천 조문객 눈물의 작별

김영삼 전 대통령을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는 유족들은 26일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김 전 대통령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이날 이른 오전부터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고인을 배웅하려는 유족과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오전 9시부터부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서로 붙잡고 위로하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띄었으며 끝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 건물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누이들은 "말 한마디만 하고 가, 맨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한번만 하고 가, 우리 오빠 보고 싶어"라며 통곡했고, 이를 지켜보는 아들 현철씨의 얼굴엔 침투함이 가득했다.

이어 오전 10시 진행된 발인예배에는 유족 외에도 닷새 내내 빈소를 지킨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의원을 비롯해 이흥우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이석재 전 정통부 장관 등 측근과 정관계 인사 100여명이 자리했다. 하지만 손명순 여사는 이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손 여사가 고령인데다가 몸도 안 좋고, 날씨도 너무 추워 함께 못했다"고 전했다.

발인 예배가 진행된 예배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차 일부는 서서 예배를 지켜봤다. 맨 앞에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 마지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 현철씨 내외를 포함한 유족들은 연신 눈시울을 붉히

며 흐느꼈다.

현철씨는 가족 인사를 통해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날 하나니까 아버지님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회가 다시 불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님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통합과 화합이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은 소임을 다하셨고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며 다소 목이 메인 듯 차레 말을 잊지 못하면서도 담담하게 인사를 마쳤다.

유족들은 발인예배 후 정오까지 조문을 받은 뒤 국회 영결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께 김 전 대통령의 관을 검은색 링컨 리무진으로 운구했다.

한편, 유족측은 이날 오전에만 1200여 명이 조문하는 등 닷새 동안 총 3만6900 명이 조문했다고 추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박 대통령, 영결식 불참 장례식장서 마지막 배웅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빈소에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전 대통령 시신을 모신 관과 영정이 운구차에 실려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8분간 지켜보면서 애도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영결식 날씨가 야외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는 국회 영결식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이날 빈소에 들러 인과 작별을 고했다.

박 대통령은 영구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고인을 향해 목례했고,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벗어나 국회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회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회망 31~58세</p> <p>VIP 회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회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구 7면동 70m 442평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010-3598-7080/1899-397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5-1107호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1. 개최목적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12. 11.(금) 14:00 ~ 16:10
 - 장소 : 광주광역시 상무평화로 13 (감대중간벤치센터 맞은편 5·18자우공영관 강당)
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 도시재생의 권역설정 및 권역별 도시재생 전략구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
4. 기타사항
 -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하시거나 개최 당일 또는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 062-613-4771~2, mjh0909@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